

##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오 정 숙 (경인교대 교육대학원)

김 해 숙 (경인교대 교육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경험하는 자아개념의 변화, 학업성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누적된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인 분석을 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연구에 참여한 총 364명으로 남학생 192명, 여학생 172명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남, 여 전체집단에서 연속해서 가족자아개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고, 신체자아개념이 가장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취자아개념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낮아졌다. 둘째, 초등학교 때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가 사회성적과 성취자아개념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때는 남학생은 성적총점과 학문자아개념의 상관관계가, 여학생은 성적총점과 성취자아개념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가 학업성취와 자아개념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고, 각 과목 성적과 성적총점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문자아개념과 그 하위자아개념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성취도가 계속해서 상위집단에 속한 학생의 학문자아개념과 그 하위자아개념인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이 계속해서 하위집단에 속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학문자아개념과 그 하위자아개념인 가족자아개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상위집단에 속한 학생이 계속해서 하위집단에 속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성취도가 계속해서 높은 학생은 계속해서 낮은 학생보다 사회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을 제외한 모든 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I. 연구목적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고 이해하면서 이를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자아개념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 환경 및 학급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또래 집단과 담임, 많은 교과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으로 지각된다. 송인섭(1989)은 초등학교에서의 계속된 또래집단은 자아영상에 있어 혼란을 나타내지 않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초등학교까지의 또래집단보다 더 혼란되고, 이 혼란은 청년 초기에 발생되어, 사춘기 동안의 학교생활과 관련된다고 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졌을 때는 행동에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졌을 때는 자존심도 쉽게 상실하고 사회적인 접촉을 피하게 된다. 송인섭(1989)은 인간의 자아개념은 여러 개의 하위자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 중 혹시 한 두 가지의 하위자아개념에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다른 영역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는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간에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 보고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아동은 학업성취가 높고 더 행복하고 불안을 덜 느끼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정정진(1998)은 자아개념 점수가 낮은 집단에 있어서 자아개념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개입과 자아개념 발달촉진을 위한 지도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간의 정의적 행동특성 중에 중심적이며 정신의 원동력이 되는 자아개념과 누적된 학업성취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등을 연구해서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상담 활동을 심도 있게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단기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자아개념의 차이,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학년 수준과 성별에 따라 학생들이 갖게 되는 자아개념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년 수준과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누적된 학업성취도에 따라 자아개념의 차이는 어떠한가?

## III. 연구 방법 및 실시

### 1. 대상

이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교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총 577명을 표집 하였다. 이 연구에서 6학년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시기는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내적·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지의 문장 이해력 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03년도 연구 참여자는 2002년도의 연구 참여자들이 입학하여 다니고 있는 2개교 중학교 1학년 학생 총 635명을 표집하였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계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동일학생 중 중학교 1학년 배치고사 성적,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성적이 있는 학생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단 자아개념검사에서 부적절한 응답을 한 학생과 성적이 누락된 학생 11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364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체학생의 학업성적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6학년 배치고사 성적과 중학교 1학년 성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 627명을 전체학생 수로 하였다. 그 결과 1년 동안의 단기종단연구에 참여한 학생 수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lt;표 1&gt; 연구 참여자의 학년별, 성별 분포

구분	성별		연구 참여자 수 (분석대상)
	남학생	여학생	
2002년 초등 6학년 때	192	172	364
2003년 중 1학년 때	192	172	364

## 2. 자아개념 검사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송인섭(1985)이 개발한 중·고등학교용 자아개념 진단검사 도구로 총 1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 I과 10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II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검사 I을 선택하여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일반자아개념을 제외하고, 학문자아개념(학급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중요타인자아개념(사회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정서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인 7개 하위요인 자아개념 총 121문항을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문자아개념과 구별되는 중요타인자아개념과 정의자아개념을 묶어서, 비학문자아개념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자아개념을 학문자아개념인 학급 자아개념, 성취 자아개념, 능력 자아개념과, 비학문자아개념인 사회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정서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으로 나누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항상 그렇다(4)'의 4단계 척도로 나누었고 최저 121점부터 최고 484점까지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Conbach  $\alpha$ 계수에 의해 자아개념 척도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95이고 중학교 1학년의 경우 .95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도 .75에서 .92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1차 설문조사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3개교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6학년 남녀 학생으로, 본 연구자가 각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직접, 설문조사 시 유의점을 설명하고 각 교사는 학생에게 설문지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오전 시간에 30~40분 동안 실시하였다. 2002년 9월 4일에서 12일까지 총 577부를 배부하여 570부를 회수하였다.

2차 설문조사 대상은 2002년도에 1차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했던 학생들이

입학 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2개교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으로, 2개의 중학교 모두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후인 6월 1일에서 6월 18일까지 자아개념 설문지를 635부 배부하여 627부를 수거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각 중학교 1학년 부장교사에게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 조사 시 유의점을 설명하고 담임 교사가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아침자습 시간에 학생에게 설문지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30~40분 동안 실시하였다.

### 3. 학업성취도 검사

학업성취도 검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학업성적을 이용하였다. 6학년 때 학업성적은 2003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에서 제작하여 중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동시에 실시한 반 배치고사 성적이다. 이 검사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개 교과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성적총점은 4개 교과의 합을 사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학업성적은 두개의 중학교에서 각각 제작하여 5월에 실시 한 중간고사 성적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두개의 중학교에서 똑같은 교과목, 즉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영어, 한문, 컴퓨터 9개 교과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성적총점은 9개 교과의 합을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와 비교할 때는 초등학교와 같은 과목인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의 4개 교과 성적만을 비교하였지만, 성적총점은 그대로 9개 교과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에 속하는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중학교 1학년 때 전체집단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상위, 중위, 하위), 중위(상위, 중위, 하위), 하위(상위, 중위, 하위)의 아홉 가지 범주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따른 집단 중 연구 참여자만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사례수로 하였다.

### 4. 자료처리

이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검사 도구의 채점 절차에 따라 채점한 후에 그 결과를 SPSS 10.0 version에 의해 전산 통계 처리를 하였다.

첫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남, 녀 학생들이 갖게 되는 자아개념에는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년 수준과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누적된 학업성취도의 경험은 학생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의 결과

### 1. 자아개념의 변화

학년수준과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 평균 값 차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총 364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를 남, 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비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을 비교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자아개념하위요인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학문자아개념	남	192	2.7979	.3995	-1.206
	여	172	2.8494	.4148	
학급자아개념	남	192	2.8093	.3721	-2.261*
	여	172	2.8995	.3888	
성취자아개념	남	192	2.7708	.4768	-.525
	여	172	2.7973	.4828	
능력자아개념	남	192	2.8134	.5140	-.713
	여	172	2.8512	.4955	
비학문자아개념	남	192	2.8917	.3363	-2.115*
	여	172	2.9642	.3144	
사회자아개념	남	192	2.8775	.3589	-3.212***
	여	172	2.9983	.3577	
가족자아개념	남	192	3.4173	.4449	-1.060
	여	172	3.4644	.3973	
정서자아개념	남	192	2.8077	.4899	-1.252
	여	172	2.8671	.4059	
신체자아개념	남	192	2.4645	.4333	-1.374
	여	172	2.5269	.4313	
자아개념총점	남	192	2.8448	.3405	-1.738
	여	172	2.9068	.3388	

\*\*\* $p < .001$  \* $p < .05$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의 성별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사회자아개념이고,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학급자아개념과 비학문자아개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개념 하위요인별로 살펴볼 때 남, 녀 모두 가족자아개념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고, 신체자아개념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자아개념, 학급자아개념, 비학문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가족자아개념은 많은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모 자녀 관계로 설명될 수 있으며, 낮은 신체자아개념은 자신의 외모에 예민하고 불만족스러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의 반응으로 보인다.

#### 나. 중학교 1학년 때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비교

중학교 1학년 때 학생의 성별에 따라  $p < .01$  수준에서 사회자아개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정서자아개념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때와 비슷하게 남, 녀 모두 가족자아개념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학생은 성취자아개념에서 여학생은 신체자아개념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자아개념이 높았는데 이는 초등학교 때와 같은 결과이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정서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다. 초 6학년 때와 중 1학년 때 남학생의 자아개념 비교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lt;표 3&gt; 초 6학년 때와 중 1학년 때 남학생의 자아개념의 변화

자아개념하위요인	학년수준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t
학문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6949	192	.4654	-3.742***
	초등학교 6학년	2.7979	192	.3995	
학급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8634	192	.4066	1.930
	초등학교 6학년	2.8093	192	.3721	
성취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5177	192	.5487	-7.163***
	초등학교 6학년	2.7708	192	.4768	
능력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7034	192	.6061	-3.016**
	초등학교 6학년	2.8134	192	.5140	
비학문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8858	192	.3493	-.245
	초등학교 6학년	2.8917	192	.3363	
사회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8404	192	.3645	-1.289
	초등학교 6학년	2.8775	192	.3589	
가족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3.3145	192	.4933	-2.808**
	초등학교 6학년	3.4173	192	.4449	
정서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8564	192	.4642	1.339
	초등학교 6학년	2.8077	192	.4899	
신체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5319	192	.4431	1.956
	초등학교 6학년	2.4645	192	.4333	
자아개념총점	중학교 1학년	2.7903	192	.3689	-2.418*
	초등학교 6학년	2.8448	192	.3405	

\*\*\* $p < .001$  \*\* $p < .01$  \* $p < .05$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의 자아개념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쌍별집단 비교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취자아개념과 학문자아개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능력자아개념과 가족자아개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자아개념총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성취자아개념, 학문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자아개념총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라. 초 6학년 때와 중 1학년 때 여학생의 자아개념 비교 :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초 6학년 때와 중 1학년 때 여학생의 자아개념의 변화

자아개념하위요인	학년수준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t 값
학문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7037	172	.4440	-5.902***
	초등학교 6학년	2.8494	172	.4148	
학급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8953	172	.3842	-.154
	초등학교 6학년	2.8995	172	.3888	
성취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5318	172	.5475	-8.721***
	초등학교 6학년	2.7973	172	.4828	
능력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6840	172	.5406	-5.135***
	초등학교 6학년	2.8512	172	.4955	
비학문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8634	172	.3241	-4.579***
	초등학교 6학년	2.9642	172	.3144	
사회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9402	172	.3307	-2.105*
	초등학교 6학년	2.9983	172	.3577	
가족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3.3149	172	.5144	-4.633***
	초등학교 6학년	3.4644	172	.3973	
정서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7483	172	.4410	-3.552***
	초등학교 6학년	2.8671	172	.4059	
신체자아개념	중학교 1학년	2.4502	172	.3920	-2.530*
	초등학교 6학년	2.5269	172	.4313	
자아개념총점	중학교 1학년	2.7836	172	.3551	-5.960***
	초등학교 6학년	2.9069	172	.3388	

\*\*\* $p < .001$  \* $p < .05$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자아개념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쌍별집단 비교검증(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취자아개념, 자아개념총점, 학문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비학문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신체자아개념, 사회자아개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도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보다 학급자아개념을 제외한 모든 자아개념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취자아개념에 있어서는 남학생( $t = -7.163$ ,  $p < .001$ )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에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보다 정확하게 측정되고, 또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막연히 가지고 있던 본인의 학업성취도가 중학교 때 성취자아개념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 마. 초 6학년 때와 중 1학년 때 전체학생의 자아개념 비교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자아개념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쌍별집단 비교검증(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취자아개념, 학문자아개념, 자아개념총점, 능력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이고,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비학문자아개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사회자아개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성취자아개념, 학문자아개념, 자아개념총점, 능력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비학문자아개념, 사회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아개념의 차이를 종합하면 자아개념의 하위요인끼리 비교해 볼 때 송인섭의 자아개념 검사의 기준점수와 마찬가지로 가족자아개념 평균점수(중학교  $M=3.31$ , 초등학교  $M=3.44$ )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신체자아개념 평균점수(중학교  $M=2.49$ , 초등학교  $M=2.49$ )는 두 시기에 모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아개념을 학년수준별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자아개념, 학급자아개념, 비학문자아개념이 높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여학생이 사회자아개념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정서자아개념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아개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성취자아개념, 학문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보다 학급자아개념을 제외하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남·녀 전체를 비교했을 때도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보다 성취자아개념, 학문자아개념, 자아개념총점, 능력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비학문자아개념, 사회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때와 초등학교 때 전체집단 비교에서 성취자아개념( $t=-11.013$ ,  $p < .001$ )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보다 대체적으로 자아개념이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 2.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학년수준과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364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를 남, 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국어성적, 사회성적, 수학성적, 과학성적, 4과목 총점을, 중학교 1학년 때는 국어성적, 도덕성적, 사회성적, 수학성적, 과학성적, 기술가정성적(기가), 영어성적, 한문성적, 컴퓨터성적, 9개 과목의 총점과 자아개념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 가. 초 6학년 때 남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분석

그 결과 국어성적, 사회성적, 과학성적, 성적총점은 학문자아개념,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자아개념총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수학성적은 학문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남학생은 국어성적, 사회성적, 과학성적, 성적총점이 높을수록 학문자아개념과 그 하위자아개념인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성적은 성취자아개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 $r=.32$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초 6학년 때 여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분석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학생( $N=172$ )의 경우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구 분	국어성적	사회성적	수학성적	과학성적	성적총점
학문자아개념	.489**	.489**	.270**	.389**	.474**
학급자아개념	.343**	.371**	.173*	.317**	.343**
성취자아개념	.487**	.500**	.299**	.362**	.485**
능력자아개념	.483**	.450**	.252**	.377**	.449**
비학문자아개념	.207**	.218**	.015	.097	.132
사회자아개념	.249**	.205**	.054	.135	.167*
가족자아개념	.089	.112	.013	.051	.068
정서자아개념	.206**	.198**	-.027	.111	.107
신체자아개념	.122	.175*	.014	.020	.084
자아개념총점	.395**	.400**	.173*	.284**	.352**

\*\* $p<.01$  \* $p<.05$

<표 5>에서와 같이 사회성적은 가족자아개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국어성적은 가족자아개념과 신체자아개념을 제외한 다른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수학성적과 과학성적은 학문자아개념,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자아개념총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적총점은 학문자아개념,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사회자아개념, 자아개념총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성적과 가족자아개념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학생은 국어와 사회성적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사회성적은 성취자아개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 $r=.50$ )를 보였다.

#### 다. 중 1학년 때 남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분석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 $N=192$ )의 경우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구 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가 가	영어	한문	컴퓨터	총점
학문자아개념	.261**	.416**	.444**	.380**	.458**	.267**	.384**	.383**	.357**	.467**
학급자아개념	.120	.249**	.262**	.224**	.310**	.178*	.239**	.223**	.334**	.297**
성취자아개념	.252**	.444**	.450**	.374**	.439**	.244**	.369**	.402**	.293**	.456**
능력자아개념	.293**	.389**	.440**	.386**	.450**	.275**	.391**	.367**	.333**	.464**
비학문자아개념	.084	.166*	.162*	.127	.228**	.133	.180*	.206**	.269**	.214**
사회자아개념	.003	.150*	.134	.033	.147*	.141	.125	.137	.199**	.146*
가족자아개념	.182*	.153*	.185*	.232**	.252**	.142*	.189**	.187**	.280**	.249**
정서자아개념	.089	.172*	.156*	.118	.231**	.102	.178*	.186**	.199**	.197**
신체자아개념	-.031	.048	.032	-.007	.078	.039	.070	.135	.165*	.071
자아개념총점	.191**	.322**	.335**	.280**	.380**	.221**	.312**	.326**	.346**	.377**

\*\* $p<.01$  \* $<.05$

그 결과 <표 6>과 같이 컴퓨터성적은 모든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도덕성적, 과학성적, 성적총점은 신체자아개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성적, 영어성적, 한문성적은 학문자아개념,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비학문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 자아개념총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초6

남학생에 비해 각 과목 성적과 비학문자아개념과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발달속도가 늦은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은 모든 과목 성적과 성적총점이 높을수록 학문자아개념과 그 하위자아개념이 높고, 특히 성적총점과 학문자아개념은 상관관계( $r=.46$ )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 라. 중 1학년 때 여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분석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 $N=172$ )의 경우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구 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가	영어	한문	컴퓨터	총점
학문자아개념	.424**	.426**	.472**	.435**	.503**	.334**	.498**	.416**	.410**	.549**
학급자아개념	.342**	.316**	.351**	.314**	.338**	.191*	.396**	.303**	.272**	.394**
성취자아개념	.401**	.431**	.478**	.440**	.533**	.371**	.493**	.411**	.412**	.559**
능력자아개념	.396**	.389**	.428**	.404**	.459**	.312**	.446**	.394**	.400**	.508**
비학문자아개념	.154*	.131	.159*	.177*	.255**	.095	.300**	.215**	.258**	.243**
사회자아개념	.164*	.083	.143	.101	.133	.062	.201**	.116	.125	.156*
가족자아개념	.102	.111	.131	.193*	.294**	.131	.298**	.234**	.229**	.243**
정서자아개념	.124	.110	.102	.095	.154*	.078	.202**	.128	.161*	.159*
신체자아개념	.100	.092	.120	.141	.173*	.002	.205**	.160*	.267**	.172*
자아개념총점	.336**	.326**	.367**	.353**	.431**	.252**	.448**	.358**	.374**	.454**

\*\* $p<.01$  \* $p<.05$

그 결과를 보면 <표 7>에서처럼 영어성적과 성적총점은 모든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과학성적과 컴퓨터성적은 사회자아개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중학교 때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한문과목의 성적도 사회자아개념과 정서자아개념을 제외한 다른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국어성적, 도덕성적, 사회성적, 수학성적, 기가성적은 학문자아개념,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은 영어성적과 성적총점이 높을수록 모든 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성적총점과 성취자아개념의 상관관계( $r=.56$ )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 마. 초 6학년 때와 중 1학년 때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분석

남학생( $N=192$ )과 여학생( $N=172$ )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종합해보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의 비교 교과를 같게 하기 위하여 중학교의 교과를 국어, 사회, 수학, 과학만을, 성적총점은 그대로 9개 교과의 합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각 과목 성적과 학급자아, 성취자아, 능력자아개념은 대체적으로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와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과 상관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때 남학생과 여학생은 사회성적과 성취자아개념의 상관관계(남  $r=.32$ , 여  $r=.50$ )가 가장 높았다. 중학교 때 남학생은 성적총점과 학문자아개념의 상관관계( $r=.47$ )가, 여학생은 성적총점과 성취자아개념의 상관관계( $r=.56$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은 각 과목과 학문자아개념과 그 하위자아개념인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은 각 과목과 학문자아개념과 그 하위자아개념인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과 비학문자아개념인 가족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가 성적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고, 각 과목 성적과 성적총점이 높을수록 학문자아개념과 그 하위자아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 누적된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학습에서 성공이나 실패의 누적된 경험이 학생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Kifer, 1975; 김호권, 황인창, 이재신, 노경희, 1979; 최은경, 1986)를 기초로 하여 먼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에 속하는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중학교 1학년 때 전체집단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상위, 중위, 하위), 중위(상위, 중위, 하위), 하위(상위, 중위, 하위)의 아홉 가지 범주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집단별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까지 누적된 학업성취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총 364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 가. 누적된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문자아개념의 차이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각각 집단별로 학문자아개념과 학문자아개념하위요인(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의 평균을 알아보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집단별로 자아개념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사이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과 <그림 1>처럼 누적된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으로 구성된 학문자아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도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상위집단에 속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상위집단에 속한 학생집단(이하 '상상'집단)의 학문자아개념은 계속해서 중위집단(이하 '중중'집단), 초등에서 중위집단 중학교에서는 하위집단(이하 '중하'집단)에, 초등에서 하위집단 중학교에서는 중위집단(이하 '하중'집단)에, 또한 계속해서 하위집단(이하 '하하'집단)에 속한 학생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중'집단과 '중중'집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계속해서 학업성취도가 하위에 속한 집단보다 학문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중위집단이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상위에 속한 학생은 '중하'집단과 '하하'집단보다 학문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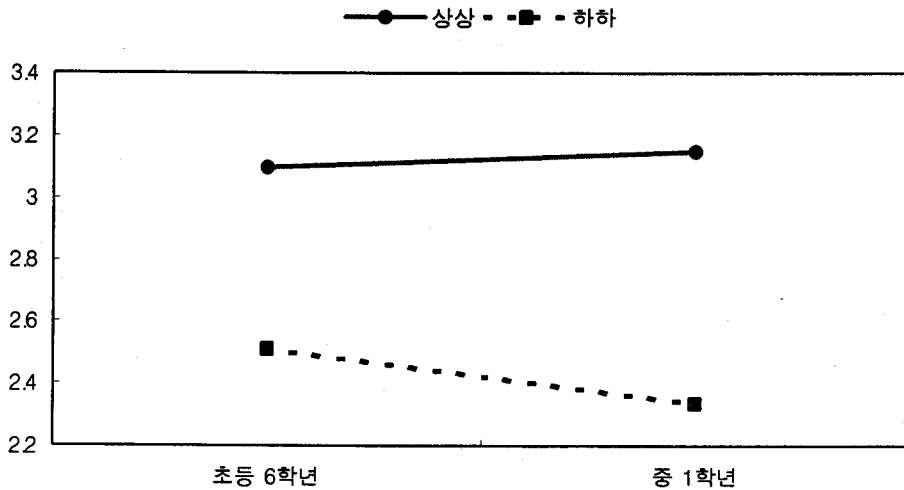
따라서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위집단에 속한 학생과 계속해서 하위집단에 속한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학문자아개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상'집단에 속한 학생의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를 살펴볼 때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더 낮아지지 않은 반면, '하하'집단에 속한 학생은 초등학교 때( $M=2.51$ )에 비해 중학교 때( $M=2.34$ )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학문자아개념의 평균점수 차가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중학교 1학년 때 더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8> 초 6학년과 중 1학년 때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문자아개념의 차이

집단구분			학문자아개념				
초6	중1	사례수	초 6학년 때		중 1학년 때		사후검증
성적	성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위	상위	47	3.0983	.3413	3.1507	.3404	상상 > 중중, 중하, 하중, 하하
	중위	20	3.0173	.3914	2.8505	.4477	
	하위	0	-	-	-	-	
중위	상위	19	2.9914	.3446	2.9337	.2961	21.475*** 상중, 중중 > 하하
	중위	163	2.8379	.3695	2.7029	.3956	
	하위	51	2.7494	.3941	2.5232	.4375	
하위	상위	0	-	-	-	-	중상 > 중하, 하하
	중위	12	2.5669	.2836	2.4233	.3901	
	하위	52	2.5118	.3915	2.3366	.3742	

\*\*\* $p < .001$  \*\* $p < .01$



<그림 1> 초 6학년과 중 1학년 때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문자아개념의 차이

나. 누적된 학업성취도에 따른 비학문자아개념의 차이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각각 집단별로 비학문자아개념과 비학문자아개념의 하위요인(사회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의 평균을 알아보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집단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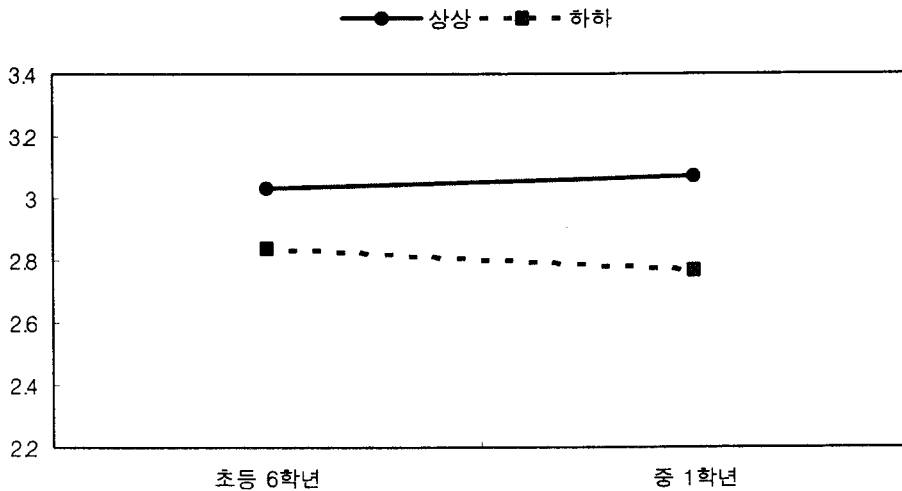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느 집단사이에 차이를 토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9> 초 6학년과 중 1학년 때 학업성취도에 따른 비학문자아개념의 차이

집단구분			비학문자아개념					
초6 성적	중1 성적	사례수	초 6학년 때		중 1학년 때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위	상위	47	3.0319	.2493	3.0693	.2928	3.750**	상상>중중, 하하
	중위	20	2.9702	.3412	2.8489	.3550		
	하위	0	-	-	-	-		
중위	상위	19	2.8896	.2294	2.9051	.2618		
	중위	163	2.9296	.2993	2.8613	.3015		
	하위	51	2.9126	.4412	2.8684	.4170		
하위	상위	0	-	-	-	-		
	중위	12	2.8528	.2552	2.8299	.2220		
	하위	52	2.8371	.3269	2.7649	.3820		

\*\*p<.01



<그림 2> 초 6학년과 중 1학년 때 학업성취도에 따른 비학문자아개념의 차이

<표 9>와 <그림 2>처럼 누적된 학업성취도에 따라 사회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으로 구성된 비학문자아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성취도가 계속해서 상위집단에 속한 학생의 비학문자아개념은 계속해서 중위집단과 하위 집단에 속한 학생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학문자아개념의 평균점수 차가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중학교 1학년 때 더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학문자아개념의 차이는 그 하위요인인 가족자아개념이 중학교 1학년 때 성취집단별로 차이가 있어 그것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학업성취도가 계속해서 높은 학생은 학문자아개념과 비학문자아개념이 중학교 때 낮아지지 않는 반면, 학업성취도가 계속해서 낮은 학생은 중학교 때 자아개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그 차이가 더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의 자아개념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 V. 논의 및 제언

이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자아개념의 변화,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누적된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또한 차이와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자아개념의 안정성을 연구한 이사라(2001)에 의하면 자아개념 발달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구조적인 연속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남, 녀 전체학생을 비교해보면 자아개념 하위요인들의 발달이 연속성을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족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연속적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자아개념은 연속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송인섭(1985)의 중·고등학생 자아개념검사 결과에서 가족자아개념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가족자아개념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모 자녀와의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토착심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민족은 가족간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토속신앙, 불교, 유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학생에게서 가족자아개념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를 서양의 이

론으로 해석하면 부모의 지시와 적극적인 보살핌이 가족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건강하지 못한 가족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부모의 간섭과 적극적인 부모역할을 애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토착적인 부모 자녀 관계 맥락에서 재해석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신체자아개념이 낮은 이유로는 한참 자신의 외모에 민감해지는 청소년 초기에 있는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되어진다.

자아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보다 학급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을 제외한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취자아개념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비해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동안 자아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며 중학교에 입학해서 일시적으로 자아개념이 안정성을 잃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에 Seidman(1994), Rosenberg(1985), Harter(1982)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남덕진, 2001. 재인용). 또한 Katz와 Zigler(1967)의 연구에서도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인섭, 1989. 재인용). 그러나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는 남, 녀 학생에게서 자아개념의 차이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여학생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의 일반적인 자아개념은 낮아지고 덜 안정적으로 나타났는데(Simmons, Rosenberg, F. & Rosenberg, M., 1973)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환경의 차이, 학교성적 기준의 엄격함과 사회적 네트워크 환경의 붕괴 때문(Eccles & Midgley, 1989)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청년기의 자아개념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동요가 심한 것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므로 자신에 대한 일관적인 자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 Rosenberg(1986)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남덕진(2001)에 의하면 청소년은 13세 전후에 자아개념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보이다가 16세 경에 안정성을 보이는데 자아개념의 혼란에서 안정을 찾는 기간은 자아개념이 긍정적 일수록 빠르다고 했다. 자아정체감의 혼란 시기에 있는 이들, 특히 자아개념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청소년에게 있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안정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방법이 모

색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환경의 차이, 학교성적 기준의 엄격함 등 중학교에 관한 사전 정보를 줄 필요성이 있고, 중학교에서는 중학교의 상황을 이해하여 일시적으로 잃을 수 있는 자아개념의 안정성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여학생 모두의 경우 중학교 때 학업성취도와 학문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 $r=.14\sim.55$ )를 나타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와 중학교 1학년 때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국어성적, 사회성적, 수학 성적, 과학성적, 성적총점과 학문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학급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 $r=.17\sim.55$ )를 나타냈다. 이는 학문자아개념이 동일한 학업과제 수행에 대하여, 타인과 비교하여 성취해 내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학문자아개념과 비학문자아개념에 있어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중학교 때가 초등학교 때에 비해 그 차가 더 유의하게 벌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학업성취도가 계속해서 높은 학생은 학문자아개념과 비학문자아개념이 중학교 때 낮아지지 않는 반면, 학업성취도가 계속해서 낮은 학생은 중학교 때 자아개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그 차가 더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개념은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종승(1981)의 연구와, 학습경험이 누적될수록 자아개념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계수가 증가된다고 보고한 최은경(1986), 학업성적에서 성공과 실패 집단간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개념 발달의 차이는 증가한다는 Kifer(197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덕진(2001)은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중학교 2학년 성적에 .45, 13세 자아가 중학교 2학년 성적에 .49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학업성취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를 걸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시기는 또래집단에 비친 자기를 인식하고 평가하며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험과 성적으로 인하여 부모나 교사, 혹은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중학교에서의 새로운 교사와 또래들과의 만남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아인지는 높아져 자신에 대한 평가에 민감해진다. <표 3>과 <표 4>에서처럼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성취자아개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도 바로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Bandura(1997)는 중등학교로의 진학은 자기효능감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주요한 환경적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3. 재인용).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업성취는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개념은 다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업과 관련해서 어떤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 혹은 강화해야 할 자아개념의 부분들을 파악하여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조한익, 2000). '문은 곧 판료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좁고 자원이 부족한 국토에서 지·덕·체를 겸비한 인적자원으로 자라나는 것은 미래 성공의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년만에 걸친 단기종단연구였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자아개념의 변화에 또는 자아개념이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상호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들 간의 상호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2~3년간의 연구를 지속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그 상호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Kifer(1975)의 연구처럼 학습의 성공과 실패가 자아개념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과, 누적된 학습경험이 학습 성공집단과 실패집단의 자아개념 점수에 뚜렷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좀 더 장기간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구병두 (1996). 학업성취 관련변인. 서울: 양서원.
-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조한익 (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기정 (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미경, 김지영, 황혜정, 이성진 (1998).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 제19, 20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21(4).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김수천 (1974). 자아개념 ·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춘천교육대학논문집, 제14권, 35-52.
- 김영애 (1985). 유아의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용래 (1975).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의 상관성 연구: 각급 학교별 비교 · 분석을 중심으로. 홍대 논총. 홍익대학교.
- 김정숙 (1983).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동기의 학업성적 예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식 (1985). 자아개념 · 포부수준과 학업성취와의 상관.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영, 김정화, 이성진 (1992).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제23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25(2).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김호권, 황인창, 이재신, 노경희 (1979). 자아개념의 변화에 관한 유사 종단 연구. 자아개념의 변화에 관한 유사 종단적 연구, 12(2). 서울: 한국 행동과학연구소.
- 남덕진 (2001). 자아개념발달에 관한 종단적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박병찬, 이영신, 조시화 (1980). 학습부진아 유형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121집.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 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7(1). 한국교육심리학회.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인섭 (1985). 표준화된 자아개념 검사.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송인섭, 김정원, 정미경, 김혜숙, 신은영, 최지은, 박소연 (2000). 교육심리학. 서울: 양서원.
- 신현수 (2000). 자기성장 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진숙 (1980). 학교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만록 (1984). 학업성취의 누적경험이 정의적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유길자 (1984). 중학교 신입생의 학업성취 예언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기호 (1991).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사라 (2001). 부모와 또래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성진 (1998).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의 이론적 정당화. 연구노트, 16(1).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성진, 임진영, 여태철 (1997). 19세 청소년의 인생관, 흥미, 가치관 및 자아 정체성 형성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아동의 종단적연구, 28(1).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재식 (1973). 발달단계로 본 자아개념과 학업성적.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승 (1981). 학업성취에 관련된 변인의 한 인과분석.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제19권 제3호, 109-120.
- 장석민 (1972). 학업성취와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아윤 (1985). 자아개념 · 지능 · 학업성취의 상관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정진 (1998). 아동용 자아개념표준화 연구. 강남대학교논문집, 제32권, 341-364.
- 조장은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이 청소년기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은경 (1986). 자아개념 및 IQ와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에 대한 유사종단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인수 (2000).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명희 (1990).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은화 (1985).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Kifer, E. (1975).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 quasi-longitudinal stud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1-210.
- Song, I. S. (1982). The dimensional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New England.
- Simmons, R. G., Rosenberg, F., & Rosenberg, M., (1973). Disturbance in the self-image at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pp. 553~568.
- Eccles, J. S., & Midgley, C. (1989). Stage/environment fi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rooms for early adolescents. In R. Ames & C.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3, (pp. 139~18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Rosenberg, M. (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ls & A.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3, pp. 107~136. Hillsdale, NJ: Erlbaum.